

다문화사회와 개신교의 기독교교육

오 현 선

호남신학대학교

〈요 약〉

이 글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종교교육의 범주와 내용을 개신교 입장에서 소개하는 글이다.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적 사회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사회는 현 단계의 변화를 진단하고 다문화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한바, 개신교의 종교적 가르침과 성서가 안내하고 있는 가치들을 다문화적 관점에서 소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종교교육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론에서는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종교교육 담론의 범주를 종교 간/종교 내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두 범주에 따라 다문화 종교교육의 교육목표와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간단히 설명하고 본 논문 자체의 내용은 후자의 범주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음을 밝힌다. 본문의 내용은 다문화사회와 함께하는 개신교 종교교육의 목표, 성서와 개신교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예장총회)의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개신교 다문화 종교교육의 근거를 소개, 분석하였다. 그리고 예장총회의 다문화 종교교육의 상황을 설명하고 다문화사회에서의 개신교 교회와 종교교육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핵심 주제어: 다문화종교교육, 개신교 다문화종교교육, 이주민, 성서와 다문화종교교육, 인종, 다양성

이야기 하나. 딕 질레트(Dick Gillet) 목사의 이야기¹⁾

7명의 목사들이 함께 고급호텔의 커피숍에 앉아 주문한 커피를 다 마시자 질레트 목사가 말문을 열었다. “자, 이제 다 마셨으니 일어서지요.” 그리고 일어서서 말하기를 “잠시

1) Pierrette Hondagneu-Sotelo, *God's Heart Has no Borders: How Religious Activists are Working for Immigrant Tights* (Berkeley, LA, London, University of Calif. Press, 2008), p.89.

여쭙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잘 압니다. 이런 일이 참 어색한 일이고, 여러분이 제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신 것도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기 선 것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심부름을 하고, 침대보를 깔고, 청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도우려 이렇게 섰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도울 의향이 계신 분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이 호텔이 그분들과 정당한 노동계약을 맺도록 서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경제정의를 위한 목회자와 평신도 연합회 CLUE(Clergy and Laity United for Economic Justice)’에 속한 목사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이 방법을 “오찬 행동(Lunch-in Action)”이라 부르며,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은 후 잠시 일어나 손님들에게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빈부와 차별의 벽이 바로 여기고 성이라고 설교하고는 밖으로 나가 기도로 마치는 방식으로 이주 노동자 지지운동을 전개해 왔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행동으로 인해 많은 호텔들이 남미에서 이주해 온 이주노동자들과 정당한 노동계약을 맺었다.

이야기 둘. 석가탄신일에 있었던 ‘다문화교회’²⁾ 이야기

수년 전 석가탄생을 축하하는 불교계의 문화행사가 즐비하게 늘어선 인사동 거리에 피부색이 낫선 얼굴의 가족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자, 미등록자들이 되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합법적 지위와 권리를 허락해 달라는 서명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어린 자녀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우리도 학교가게 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등의 글귀가 쓰여 있었다. 이들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개신교 ‘다문화교회’ 성도들로서 이날 목사님들과 한국인 성도, 이주민 성도와 그 자녀들이 함께한 캠페인이었다. 그들 앞으로 불교계 지도자들의 행진이 지나가던 순간 행렬은 멈춰지고 법복을 입은 승려들이 한쪽으로 와 구석에 마련된 서명지에 서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일에 불교, 기독교 따로 있나요. 모두가 함께 해야지요.” 어느 스님의 말씀이었고 개신교 성도들은 “그럼요. 고맙습니다. 석탄을 축하드립니다.” 응답을 하며 함께 웃음 지었던 오후였다.

2) 필자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역하였던 교회이다.

I. 서 론

‘다문화사회와 종교교육’이라는 주제를 각 종교의 입장에서 다루고자 할 때, 다문화사회에서 종교교육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신교인인 ‘내’가 다문화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종교교육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또한 다문화 개신교교육은 누가 하는 것이며, 또 누구에게 어떤 교육내용과 무슨 교육목표를 가지고, 어디서 하는 교육인가? 등등의 질문들이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종교교육의 영역을 범주화함으로써 구체화 될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진행되는 종교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가운데 진행하게 되는 종교교육과 자신의 종교 내에서 진행되는 종교교육의 두 범주이다. 첫 번째 범주의 경우, 다문화사회와 관련하여 실행해야 할 종교교육의 목표는 각 종교집단의 성원들이 타 종교의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종교 간의 다름과 같음을 식별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할 경우에 공격적이며 일방적 태도가 아닌 비폭력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종교교육의 목표로 삼게 될 것이다.

두 번째의 범주는 개별 종교 내에서 진행되는 일반적 종교교육의 내용을 의미하지만 다문화사회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종교교육이란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교와 종교인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한 교육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교와 종교인의 사회적 기능을 명료화하고 강화하는 부분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한국사회의 경우 다문화적 변화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방향과 철학을 가지고 다문화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주민과 그 가운데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이주민과 그 2세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종교적 가르침과 가치에 입각하여 대 사회적 비판기능을 감당해 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위에 던져진 질문들은 다문화사회의 현실상황에 따라 종교교육에 대한 더 많은 과제와 책임으로 이어지겠으나 현 단계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필자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개신교의 종교교육은 두 번째의 범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다문화사회에서 진행되는 개신교 종교교육’은 적어도 ‘개신교 교인 만들기 교육’은 아니어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물론 다문화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개신교의 성도들을 교육하는 외에, 다른 문화와 종교, 인종의 사람들과 만나가는 과정에서 개신교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교인이 되도록 초대하는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을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전도와 선교차원의 종교교육은 다문화 종교교육의 최중단계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로부터 해마다 수많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이 한국 사회로 이주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고, 떠날 때 남겨두고 온 이주민의 자녀들이 중도 입국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변화에 대한 담론의

과정은 이주민의 숫자파악이나 사례발견의 차원을 넘어 그들의 생존과 인권을 둘러싼 문제들, 그들과 공존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하는 시민사회의 과제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해법상의 원칙과 철학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모든 사회적 집단과 성원들이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가야 하는 단계이다. 이주민들을 ‘불신자’, ‘타종교인’으로만 바라보고 자신의 신도로 삼기 위한 신도 만들기 교육으로 종교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위에 소개된 두 가지 이야기에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과 억압을 경험하는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며 특히 종교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소리를 담고 있다. 함께 지지하고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이주민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도 공존의 존재적 필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의 중심에는 이주민이라는 ‘사람’이 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삶에 관심하는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필자는 이 글에서 현 단계 다문화사회 상황에서 필요한 개신교 종교교육의 기본이 되는 방향과 교육목표, 이를 뒷받침할 성서적 근거들,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육적 대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다문화사회와 함께하는 개신교 종교교육

1. 다문화사회와 함께하는 개신교 종교교육의 목표

인간은 교육을 통해 성장한다. 인간은 사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인간이 지녀야 할 가치, 태도 등을 교육을 통해 습득해 간다. 종교교육의 영역에서도 역시 각 개인은 자신이 선택한 종교의 신념과 가치를 인식하고 습득하는 교육적 과정에서 그 종교의 가르침을 더욱 존중하게 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하게 된다. 개신교 종교교육이란 개신교 신앙의 내용을 학습하고 인식함으로써 그/그녀가 개신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이다. 개신교 입장에서 다문화 종교교육을 말하자면 “개신교 신앙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문화적 지식, 태도, 가치, 기술을 발달하려는 노력”³⁾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종교교육이란 그 종교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사나 학생 모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에 따른 신앙을 양육해 가는 교육과는 달리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양육하고 선포하는 차원의 영역을 간과하거나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에 다

3) Barbara Wilkerson ed.,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Birmingham,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7), p.3.

다를 때까지는 다양한 층위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기반인 동시에 첫 번째 단계의 교육목표는 다문화적 종교교육에 참여하는 참여자 모두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의 흐름과 논점, 현실인식을 확장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교육주체의 관점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그 관점과 통전성을 가지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개신교 종교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우선적 교육주체들을 교회학교의 사역자, 교사라고 전제할 때 이들이 다문화사회의 구성주체를 누구로 이해하며,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공존방식은 어떤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신념화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교육과정과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단계의 다문화 종교교육을 통해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공동체를 풍부하게 한다는 것을 참여자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다수/주류 주민 중심으로 이주민의 문화나 인종을 통합해 가려는 동화적 관점은 다문화사회의 갈등, 분열, 차별을 지속적으로 구조화할 것이기에 동화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기초로 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교육목표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 교육목표는 이주민, 이주민 2세, 비이주민 모두가 학습해야 할 목표이다.

두 번째 교육적 목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관점의 확보를 심화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실천적 경험을 교육적으로 고안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 실천적 경험은 다문화사회의 변화와 그 흐름에 부응하는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일상의 변화를 동반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종, 문화, 종교적으로 다른 ‘타자(이주민)’를 바라보는 참여자들의 시선이 차별 없이 드러나도록 하는 변화, 민주적이며 비폭력적 대화를 습득한 표현의 변화 그리고 상호공존 해 가는 삶의 태도를 형성하려는 자발적이며 진정성 있는 변화가 교육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이 역시 이주민, 이주민 2세, 비이주민 모두가 경험해야 할 교육이다.

세 번째는 이주민을 초대하고 만나며 함께하는 과정에서 상호변화를 추구하고 나아가 자신의 종교공동체로의 초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이때 이 초대는 개종이나 공동체의 가입을 강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목표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 세 번째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로 이주하여 살면서 ‘다문화사회’의 담론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다. 이들을 신앙공동체에서 신도로 맞이하고 생활해 가도록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들의 인권,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에 대한 변호와 지지에 관한 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신앙공동체의 비이주민들이 이주민들을 향하여 신앙과 공동체로의 초대를 함에 있어서 인격적이며 문화소통적인 방식으로 해갈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하고 학습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사회는 이주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민주화의 정도를 평가받게 될 것이며, 개신교 역시 다문화사회 개신교 종교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사회적 기능과 종교적 포괄성에 대한 사회적이며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주민은 우리사회의 약자들이며, 소외계층이며,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종교교육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성서가 열어놓은 개신교 다문화 종교교육의 근거

한국개신교는 모든 교회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의 다문화성을 어떻게 인정해가고 수용해 가야 할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을 진보진영만이 아니라 보수진영의 교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단계에 있다.⁴⁾ 하지만 이 모색은 현재 한국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단순하고 낭만적인 ‘문화적 다문화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낭만성에 가려진 이주민들의 차별과 불평등의 상황을 변화하고 변형하려는 관점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문화 종교교육의 우선적 교육목표를 위한 성서의 근거⁵⁾들은 다음과 같다. 이주민의 생존, 인권과 사회적 지위의 문제, 정의와 평등의 문제를 지지할 수 있는 대표적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1) 이주민의 생존을 지지하는 성구들

레위기 19장 9절-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4장 19절-22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떼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4) 박종수, 「다문화현상에 대한 한국개신교의 인식과 대응」, 『종교문화연구』 제14호(2010. 6.), 91쪽.

5) 개신교 개역개정 성서로부터 인용하였다.

예레미야 22장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가 표면적으로 보면 재화의 획득과 결혼을 매개로 해서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으나 노동력과 출산력의 결핍이라는 한국사회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입된 경제난민됨을 기억해야 한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약한 자의 생존을 위해 먹거리와 일거리, 그리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성서는 강조하고 있다.

2) 이주민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성구들

레위기 19장 33절-34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0장 18절-19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레위기 24장 22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문화사회의 변화는 한국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가시화하고 인정하기 쉽지 않았

던 시민간의 사회적 서열 혹은 계급적 지위를 가시화해 주고 있다. 경제력, 학력, 젠더성은 물론이고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라는 새로운 잣대가 주류와 비주류로 사람들을 나누고 서열화하는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피부색이 옅은 사람일수록, 서구화된 문화권에서 온 사람일수록, 한국사회에 친숙한 종교일수록 존중과 대우를 받고, 피부가 검거나 짙을수록, 서구가 아닌 비서구 즉,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일수록, 기독교와 불교가 아닌 다른 힌두교, 이슬람교와 같은 낯선 종교인일수록 차별당하고 서열화 된다.

성서는 ‘다름’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낯섦과 어색함을 넘어서 차별화, 서열화 된 존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도로, 같은 자로 동일시하며 수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3) 정의와 평등을 지지하는 성구들

신명기 24장 14-15절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삷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삷을 간절히 바라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잠언 31장 8절-9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예레미아 22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사야 58장 6절-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복음 6장 21절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

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야고보서 2장 14절-16절

내 형제(자매)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성서는 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들을 위해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침묵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음에 대하여서도 저항함으로써 그들과 함께하기를 요청한다.

3. 개신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⁶⁾상의 근거

1) 인권에 관한 조항

교리편 제5부 ‘198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5장 인간편 5항 중

구원받은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고후5장17절), 인종과 계급, 그리고 남녀의 구별없이 동등한 특권을 누린다(갈3장27-28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수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롬8장31-34절)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

교리편 제5부 ‘198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6장 구원편 7항

그리스도인은 예수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훈에 따라 사랑과 공의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요17:17, 살전5:23). 남을 이용하고 남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사랑의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그의 공의를 보여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죄와 부정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벧전:16).

교리편 제5부 ‘198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7장 교회편 1항 중

우리는 교회가 시대와 지역과 종족과 인간의 계급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엡1:23, 4:16).

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교리편 제5부 ‘198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7장 교회편 5항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활동한다. (중략)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마5:13-16).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요17:14-15).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향유하도록 하며, 세상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취 줌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어야 한다.

개신교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경우 헌법의 정신에는 지역, 인종과 계급의 차이를 막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것을 천명하면서 세계의 부패와 부정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교회의 임무를 말하고 있다.

2) 종교 간의 이해와 대화에 관한 조항

교리편 제5부 ‘198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9장 선교편 4항 중

종교 간의 대화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나 타종교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타종교인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복음 선교의 자세에서 그들과의 대화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행 17:22-31).

교리편 제6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1997년 제82차 총회의 헌법개정 결의에 따른 고백서)’ 우리의 사명 4항

우리는 시장경제와 과학과 기술의 지구화, 특히 정보기술의 혁명으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에 위기에 직면한 나라와 민족들, 비인간화되어 가는 수많은 대중들, 착취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세계,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 악들을 사도적 신앙으로 변혁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을 가진다.

예장통합은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그리스도와 복음에 두고 있지만 타종교인과의 관계에서는 배타적으로 적대시하기보다는 대화적 관계를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III. 개신교 다문화 종교교육의 상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사회변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사회에 등장한 이주민들은 그들이 원하고 또 필요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이주민인 타자의 입장에서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는 틀 속에 존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본가들은 그들을 값싼 노동력의 제공자로, 한국여성과의 결혼에서 소외된 남성들은 외국인 신부로, 그들의 가족들은 아기를 낳아줄 며느리로, 종교단체나 신도들은 개종과 선교/포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인식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길 강요하고 있다. 이주민들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부분이 신 앞에서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이고 그 가운데 80% 이상이 개신교 단체라는 사실⁷⁾은 말 그대로 신 앞에서 불평등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종교단체가 가지는 민감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포교와 선교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활용론적인 현상인지는 당분간 지켜볼 일이다.

종교교육 역시 이주민을 자신의 종교의 신도로 삼기위한 교육적 노력이기보다는 이주민과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고와 태도를 학습하기 위한 다수자의 변화를 전제로 진행해야 하며, 이주민을 위한 종교교육은 글의 서두에 제시한 종교교육의 목표를 인식함으로써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개신교 종교교육(기독교교육)자의 입장에서 다문화적 기독교교육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다문화적 기독교교육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장려하며 격려하는 교육이다. 다양한 인종적 배경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를 양육하는 교육이다. 문화적 다양성이 기독교공동체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을 믿고 긍정하는 교육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가치, 세계관, 문화, 가족, 공동체의 삶을 이해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존의 관점을 가진 교육을 통하여 지배적이거나 우월적 관계가 아닌 인격적, 평등적 태도로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청소년(학습자)을 양육해야 한다.⁸⁾

상호공존과 존중을 위해 수직적 위계, 서열의식을 극복하고 수평적이며 평등한 인격적 관계의 학습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문화주의는 중앙집권화나 수직성을 배격하고 다양성과 관용성을 다문화사회의 기본요소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관점으로 필자는 다문화사회의 이주민사역과 종교교육의 상황을 개신교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예정총회)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7) 박종수, 위의 글, 85쪽.

8) 오현선,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청소년 교육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제언」, 『신학이해』 2008, 35집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2008), 204-205쪽.

9) 문영석, 「다민족, 다문화사회에서의 종교: 케냐나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통권 19호(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1), 49쪽.

개신교의 이주민 지원 사역의 능동성에 비해 다문화사회와 함께 하는 종교교육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전남 광주의 ‘새날학교’¹⁰⁾와 경기도 안산의 ‘한국다문화학교’ 등이 이주민 2세들을 위한 대안학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민 2세들을 교육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다문화 종교교육의 내용은 2세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 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교육, 다수의 변화를 위한 교육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개신교 다문화사역에 비해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9년 말까지 파악된 이주민지원 관련 개신교단체는 500여 곳으로서, 형태상 정부의 논리와 같은 동화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선교적 목적을 중요시하는 단체들, 그리고 이와는 달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서 이주민 중심의 관점으로 법제도의 개선까지도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진 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이주자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네트워크’¹¹⁾가 전자에 속한 것이라면 ‘안산이주민센터’¹²⁾나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구촌 사랑나눔’¹³⁾의 경우를 후자의 경우로 볼 수 있다.¹⁴⁾

개신교 가운데 이주민 사역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예장총회의 경우 2010년 12월까지 집계된 현재 총회 ‘국내선교부’ 산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고 있는 이주민선교 교회와 기관은 모두 109개로 보고되어 있다.¹⁵⁾ 이 교회와 기관들은 이주민이 성도로서의 등록 유무를 개의치 않고 지역의 이주민들을 실질적 도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된 활동은 이주 노동자나 문화간 결혼가정의 이주민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사업의 내용으로 정착, 확장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 지역과 주된 상담자들의 현실에 따라 각 교회나 기관이 주력하고 있는 사역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관련 개신교 단체들이 그렇듯이 다문화사역에 대한 교회와 목회자의 입장도 뚜렷이 구분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진단이나 분석에는 주목하려 하지 않고 한국남편과 이주민 아내로 구성된 결혼가정만을 지원하려 하거나 그러한 경우에조차 제한적 지원을 하는 등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현 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 ‘다문화 가족’을 이루는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중국조선족이지만 다문화가족 담론과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부

10) <http://www.saenalschool.com>

11) http://www.mmnk.kr/bbs/board.php?bo_table=z1_2

12) <http://www.migrant.or.kr/xs/main>

13) <http://www.g4w.net/>

14) 박종수, 위의 글, 91쪽.

1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국내선교부, 『제95회기 총회 이주민선교 워크숍』(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2010), 77쪽.

각되는 것은 이들이 아니라 필리핀 또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라는 것이다.¹⁶⁾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다수는 결혼이주민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역에 중심적 대상은 다문화가정, 그 가운데에서도 특정 인종의 결합 가정에 제한되고 있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여전히 낭만적이며 시혜적 성격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이주노동자를 포함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의 경우에도 농어촌에 사는 경우보다 서울 경기 지역등 대도시에서 더욱 편중되어 있음이 조사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지만¹⁷⁾ 사역의 주된 대상은 농촌의 다문화가정에 집중되고 있음으로 해서 도시이주노동자, 도시의 결혼이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의 현실은 외면당하거나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주민 사역의 초점은 그들의 한국내 문화적 적응과 한국인 만들기, 기독교의 문화적 적응과 기독교인 만들기가 아닌 생존과 인권회복의 과제에 맞추어져야 한다. 개신교 기관과 단체, 교회의 다문화 사역이 종교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듯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원칙과 철학의 결핍에 있다.

다문화사역이 다문화 종교교육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새로운 시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예장총회의 경우 2000년도 여름학교의 주제를 ‘섬김’이라는 대주제하에 다문화사회의 이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한 바 있으며¹⁸⁾ 예장총회 교육자원부 산하 다문화교육부서에 대한 조직을 기획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또한 교단소속 신학교에서는 ‘생명목회’의 차원에서 다문화사역과 교육에 대한 신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신학교수들의 관심이 표면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필자는 다문화 종교교육의 기초 작업으로 『한국사회 이주민 2세의 다중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¹⁹⁾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한 다문화 종교교육의 내용으로는 이주민 2세들을 위한 ‘다문화 씨앗학교’, ‘아이 프라이드(I-Pride: interracial pride), 다문화가정의 부모교육, 주일학교 교육을 통한 다중정체성교육,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한 다중정체성 교육, 새로운 성소운동을 통한 다중정체성 교육 등이 있다.²⁰⁾ 이 교육들은 다문화성, 다인종성을 가진 2세나 이주민만이 아닌 교회공동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종교교육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다문화 씨앗학교’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씨앗학교의 모태는 ‘광주 씨앗학교(Seed School)’²¹⁾이다. 씨앗학교는 광주지역

16) 김병조 외,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18쪽.

17) 임석희, 「결혼이주여성 유입과 분포의 지리적 특성」, 최병두 외, 『지구, 지방화와 다문화 공간』(서울: 푸른길, 2011), 134쪽.

18) 박홍순, 「다문화사회의 이주민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자원부 편, 『2009 여름성경학교 사랑으로 섬기는 청소년』(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25-36쪽.

19) 오현선, 「한국사회 이주민 2세의 다중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제60집, 2010년 가을(서울: 한국종교학회, 2010), 89-117쪽.

20) 위의 글, 108-112쪽.

21) 필자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씨앗학교는 현재 광주 치평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1년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비전코칭과 학습코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 일반 중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예장총회 성도인 대학/대학원 청년들의 교육봉사 활동이다.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사로서의 ‘T1’(Teacher 1)은 함께 배움으로 또 다른 교사인 중학생 T2(Teacher 2)간 멘토링 수업을 기초로 매주 한 번 오후 5시-9시까지 진행된다. 주로 교육소외 계층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꿈과 비전을 세워가도록 이끄는 씨앗학교는 예장총회 청년들에 의해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다.

다문화 씨앗학교는 이 씨앗학교의 경험과 2세들의 다중정체성 연구를 기초로 하여 2011년 여름부터 실행하고자 하는 이주민 2세들을 위한 학교이다. 씨앗학교가 ‘학교 안의 학교’ 형태라면 다문화 씨앗학교는 예장총회 청년과 성도들이 참여하는 ‘지역 안의 학교’ 형태로 실행될 것이다. 광주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주민 2세들의 특성상 13-1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학교, 겨울학교 형태로 지역의 공간을 사용하여 일주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다문화교육, 다중정체성교육, 다인종 교육, 비전코칭, 자기주도성 교육, 그리고 이주민 2세의 부모교육을 포함하여 진행 할 예정이다. 씨앗학교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들은 ‘다문화적 지식, 태도, 가치,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며 만나는 T1들을 통해 개신교신앙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교육은 이주민 2세만이 아니라 개신교 청년 대학생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더불어 종교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계기로 기능할 것을 기대해 본다.

IV. 결어: 다문화사회에서의 개신교 교회와 종교교육의 역할

우리보다 이주의 역사를 일찍 시작한 서구의 경우 동화주의적 입장의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하면서 새로운 다문화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4년에 인종차별법 철폐안(Civil Right Act)을 통과시킨 후 1965년에는 이주민차별금지법(Immigration Act)을, 1980년에는 난민보호법안(Refugee Act)을, 1996년에는 불법이주자 개혁안과 이주민 개혁안(Illegal Immigrant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IIRIRA)을 통과시켰다. 21세기 초에 발발한 911 사건으로 인해 미국사회가 경색되자 변화를 다시 시작한 것은 종교계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 루터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이 이민자들을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하거나 신앙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가 결성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²²⁾ 선언의 내용은 낯선 이를 환영하고 이민규제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갖자는 것이며 차별위주와 부

개발한 교재에 의해 청소년 정체성과 자기비전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는 학교이다.

22) Pierrette Hondagneu-Sotelo, 앞의 글, p.17.

분적으로 수용하는 이주법안에 관한 저항, 공정하고 인권적인 이주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장로교회 총회는 ‘미국의 이주민들의 삶과 노동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적법화를 위한 부르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안내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개신교 초교파 기구인 EMS(Evangelism and Mission in Solidarity)가 이주민에 대한지지,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국제회의와 워크숍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에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여성(Women Living in a Strange Land)”이라는 주제 하에 한국, 수단, 중국, 레바논, 일본, 독일, 인도네시아, 홍콩에서 살아가는 이주민과 이주여성의 삶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제적 관계망을 조직하기도 하였다.²³⁾ 또한 170여 개국의 이주민이 공존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개신교 종교교육가들이 ‘종교 간 교육’과 ‘종교 간 대화교육’을 연구, 지원하면서 공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²⁴⁾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종교교육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종교계, 개신교, 예장총회 역시 다문화사회의 변동과 이주민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의 입장과 법적 제도의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반성서적, 반인권적 현실에 적합한 응답을 시도하는 교회의 사역과 종교교육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주민 관련법, 지방자치의 이주민 조례, 실행령, 실행기관과 조직들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개신교 교회는 새로운 관점의 사역을 모색하고 그리하여 보다 정당하고 온전한 이주민정책과 이들을 환대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주여성들이 결혼을 매개로 우리사회로 이주해 와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시간이 흘러 법이 정한 대로 영주할 자격과 합법적인 국적취득의 자격을 갖게 되어도 여전히 이들은 우리사회의 불가시적 존재, 부족한 존재, ‘합법적 비존재(Legal Nonexistence)’²⁵⁾로 살고가고 있다. 개신교 교회공동체는 이주민들이 합법체류자나 미등록 불법체류자나의 구분을 넘어 합법적 비존재의 존재화, 불법적 존재의 합법화/존재화 과제를 위해 이들을 포용하고 지지하는 사역과 종교교육을 실천하여야 한다. 교회의 사회복지센터, 각종 이주민 지원 센터들은 정부의 대행적 차원의 봉사기능과 그 수준을 넘어 이주민과 비이주민의 차별적 경계를 극복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 가는 데까지 시각을 확장하여야 한다.

개신교 종교교육은 이러한 사역의 관점을 공유하면서 구체적인 성도의 변화, 이주민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야 한다. 교육은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소통을 통한 상호변화요 상호치유 과정이다. 개신교 종교교육은 신앙교육을 매개로 신앙 공동체에서 진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소통의 기술과 공존의 태도를 지니는 사람들로 변

23) Gabriele Mayer (ed.), *Our Voices: Women Living in a Strange Land*(Stuttgart, Germany: EMS, 2008).

24) 오현선, 『다문화사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한 기독교평화교육』,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편저, 『다문화의 평화 차이의 공존: 분쟁지역에서의 평화 만들기과 선교』(서울: 동연, 2009), 253-256쪽.

25) Susan Contín의 개념으로 법적으로는 현존하고 있는 존재이나 실질적인 사회성원으로서의 조건은 결핍된 존재라는 사회적 차별인식 속에 살고있는 존재를 말한다.

화되도록 돕는 교육이다. 다문화 종교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화적 다양성, 인종적 차이, 종교적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깊이 하고 증진시켜 가지만 다른 타자에 대한 배려와 유연성을 성숙의 척도로 이해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 종교교육은 실질적으로 다른 문화집단, 주체간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것, 타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의 문화를 비폭력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식과 태도를 익히는 것, 다문화 종교교육을 바탕으로 공교육과 일반 교육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반인권적, 인종차별적, 획일적 교육에 대한 저항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 소수자로서 차별받고,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의 경험한 이주민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하는 태도와 방법을 습득하는 것 등을 포함해야 한다.²⁶⁾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그 교육을 뒷받침 할 종교교육가를 지원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다문화사회가 기대하는 훌륭한 교사는 문화적 집단의 상황과 구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학습자의 문제를 인식하는 교사이다.²⁷⁾ 종교교육이 일어나는 교실에서 언어적 다양성이 표현이 되고 다른 인종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환경이 된다는 신념을 가진 교사, 그래서 표준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적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위축감을 느끼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포괄성과 다양성, 그리고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개신교 다문화 종교교육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수자 중심의 일방적이며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서열중심의 부정적 차별문화를 극복하게 할 도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도전을 극복해감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문화적 풍요로움이 성취될 것이다.

26) William Rademacher, *Healing and Developing Our Multiculturalism: A New Ministry for the Church*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9), pp.99-110.

27) Lisa Delpit, *Other People's Children: Cultural Conflict in the Classroom* (New York: The New Press, 1995), p.37.

참고문헌

- Delpit, Lisa. *Other People's Children: Cultural Conflict in the Classroom*, New York: The New Press, 1995.
- Hondagneu-Sotelo, Pierrette. *God's Heart Has no Borders: How Religious Activists are Working for Immigrant Tights*, Berkeley, LA, University of Calif. Press, 2008.
- Rademacher, William. *Healing and Developing Our Multiculturalism: A New Ministry for the Church*, 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9.
- Wilkerson, Barbara. (ed.).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Alabam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7.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국내선교부. 『제95회기 총회 이주민선교 워크숍』.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2010.
-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김병조 외 공저.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 문영석. 「다민족, 다문화사회에서의 종교: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통권 19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 오현선. 「다문화, 다종교 사회 속에서 청소년 교육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제언」. 『신학이해』 35집.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2008.
- _____. 「다문화사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한 기독교평화교육」. 참된평화를만드는사람들 편저. 『다름의 평화 차이의 공존: 분쟁지역에서의 평화만들기와 선교』. 서울: 동연, 2009.
- 임석희. 「결혼이주여성 유입과 분포의 지리적 특성」. 최병두 외. 『지구, 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서울: 푸른길, 2011.
- <http://www.g4w.net/>
- <http://www.migrant.or.kr/xs/main>.
- http://www.mmnk.kr/bbs/board.php?bo_table=z1_2
- <http://www.saenalschool.com>

원고접수 : 2011년 6월 22일 1차 심사 : 6월 28일 게재승인일 : 7월 11일

연구자소개 : 오현선

① 전공 : 기독교교육학 / 소속 : 호남신학대학교

② 관심영역 : 다문화사회와 기독교, 성인여성교육, 교회교육, 씨앗학교와 청소년교육

③ 주요논저 : 『기독교교육, 엘리사벳을 찾아나서다』,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다문화와 여성신학』,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 『다름의 평화와 차이의 공존』, 『다문화사회와 한국교회』

④ E-mail : hyunsuna1@hanmail.net

Abstract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Protestant Christian Education

Oh, Hyunsun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categories and contents of the religious education which are corresponding to the needs of multi-cultural changes of the Korean society. The notion of ‘religious education’ of multiculturalism has to be formed into the two dimensions, ‘inter’ religious dialogue among different religions and ‘in’ each religious aspect. My writing is focused on the latter perspective insisting the function of Protestant churches and believers that are existing the multi-cultural Korean society.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multiracial, and multireligious have challenged to the religious world to analyze social reality and to keep its healthy transformation. In this perspective, as a Protestant Christian educator, I have proposed educational purpose and contents, expla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multi-cultural ministry, and suggested the roles of Christian education for the multi-cultural Korean society based upon the teachings from the Bible and the poli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Key words: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Protestant Religious Education, Immigrant, The Bible and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Ethnicity, Diversity